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입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단기 선교팀 파송된다.

- 8월13일~22일 (9박 10일간) -

태국 치앙마이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증거, 의료봉사, 교회 짓기, 어린이 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펼 서울 선교단이 8월13일부터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파송 된다. 자격은 서울교회 등록 교인으로 중학생 이상의 나이를 가진 성인으로 선교의 열정을

갖고 복음전파에 동참할 분들을 기다린다.

접수 후 30명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발된 후보들은 4월13일부터 15주간의 선교훈련을 거쳐 파송 되는데 경비는 1인당 100만원 내외로 교회가 개인 당 2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신청접수 마감은 3월25일이고 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제2기 살롬 경로대학 개강한다

서울교회는 노년기의 건강과 영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2기 살롬 경로대학을 개강한다.

금번 살롬 경로대학은 4월12일(목)에 개강하여 6월14일(목)까지 10주간 계속되고 강의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이다. 교과과정은 1교시-음악, 율동 및 경건회 2교시-강의 3교시-점심식사 및 친교의 시간 4교시-특별활동으로 짜여진다. 특별활동 부서는 서예, 성경, 노래, 율동, 에어로빅, 취미 원예, 컴퓨터 등으로 평소애 관심이 있던 부서에 참여하면 된다.

살롬 경로대학의 입학자격은 65세 이상되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수강료와 함께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10,000 원으로 중식비,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살롬 경로대학의 강사진은 당회장 목사님을 위시한 관련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되어 노년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별 표①

순번	월일	제 목	강 사
1	4/12	노년기와 신앙생활	이중윤 박사
2	4/19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	김상철 박사
3	4/26	레크리에이션	홍봉주 교수
4	5/3	아름다운 노후생활	유 경 선생
5	5/10	퇴행성질환과 노인	이운진 박사
6	5/17	성지순례	관 광
7	5/24	한방과 노인건강	박동운 교수
8	5/31	영화상영	
9	6/7	노인복지	왕경래 교수
10	6/14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	이만열 박사

이번주의 말씀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서리라 하시도다 (개역개정판 시편 2:7-9)

I will proclaim the decree of the Lord? He said to me,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You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you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 (Ps 2:7-9)

청소 및 경비담당 용역 계약을 맺다.

새 예배당으로 입당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 및 경비업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식회사 새암개발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주 이모저모



스데반회 수련회-교회의 중간적인 역할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에 초점을 맞춰 겸손히 헌신하는 신 행일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청년부수련회 - 젊음의 때를 귀중히 여기는 지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동계수련회



사랑부 수련회-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주님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소서.



여전도회 헌신예배-주님께 헌신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자.



이사야서 강해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 7)



이중윤 목사

준엄한 재앙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1절),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약속해 주셨으며(2절),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라고(3 - 7절) 하셨습니다.

본 강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격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1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실 것이고 동행할 터이니 재앙이 오거나 곤고한 날이 임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은 부성애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1절). 창조 또는 조성하셨다는 사상은 그들이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창조자이시면 그들은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본래 없던 존재인데 이제 그들을 있게 하신 이가 그들의 하나님인 까닭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실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 자식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조성하시고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육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므로 자신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설립자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고 보급해 주십니다.

2. 여호와와 사랑은 구속자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1절). 이 말씀 역시 하나님 밖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구속'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서라도 하나님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3절),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포기하셨습니다(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어떤 희생의 댓가라도 내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 ①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신다는 것이고
- ②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 ③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므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처럼 구원하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홍수나 불과 같은 재앙을 만나도 거기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 46:1 - 3).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환난을 당할 때에 그의 친구 멜랑톤을 찾아 이 시를 같이 읽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계속 찾아오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분에게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3. 여호와와 사랑은 특별하고 영예로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1절), 이것은 선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같이 브살렐을 지명하셨고(출 31:2),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출 33:12 - 17).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어 부름을 받은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 하리니"(4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가 있는 까닭이 아니고(신 9:6)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연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고라도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진리는,
- ①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 ②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 ③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 ④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4. 두려워말라

'두려워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365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 크게 해로운 두려움을 많이 금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많은 위협과 심지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필경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해방 시켜 돌아오도록 하실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실 이유를 보여 주셨으니 곧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7절). 이것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더 먼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흩어졌던 이들이 모여지고 빼앗겼던 것들은 찾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①

초등부 수련회 이야기

나에게는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마지막이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경학교에 갔다. 이종윤 목사님과 신미숙 전도사님을 통한 꿀 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 '소요리아년 누구니'란 제목의 공과공부를 통해 천국일꾼을 위한 밑거름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결심했다. 레크레이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드는 공동벽화, 미니 올림픽, 전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선교사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던 나는 전도하는 시간이 더욱 재미있고 즐거웠다. 내가 구원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 요절을 암송하고 먹는 오무라이스와 짜장면은 너무 맛있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했다.

김성민 (6학년 초등부)

중등부 수련회에서

2월22일-24일까지 중등부 수련회를 했다. 이기간 동안이 나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다. 수련회 첫날 부푼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 하지만 섭섭한 점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인원이 적었기에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 같아서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모든 인원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 훈련을 통해 중등부 학생들이 단합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내가 제일 좋았던 시간은 찬양의 시간으로 이 때는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 내가 중등부 찬양 팀이지만 그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영광 돌리지 못했다. 하지만 고등부와 대학부가 찬양을 함께 하면서 찬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생길 정도로 은혜로웠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기도시간에는 주님과 만나서 1:1로 대화를 직접 하듯, 정말 나의 아빠와 이야기를 하듯 주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기뻐다.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한다.

최와미 (중등부)

이가 많아도 어린이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랑부 교사들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다. 앞으로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교사가 더욱 필요함을 느낀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갑작스런 주몽학교 사정으로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더욱 많은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하기에 뜻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바란다.

남태순 권사 (3교구)

새로 왔어요 비로소 안식의 등지를 듭니다.

진교남, 김희옥 집사 (1교구)

시부모님의 신실한 믿음에 반해 중매로 진교남씨를 만나 결혼하게된 김희옥씨는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로 다짐을 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쪽으로 이사를 해 가까운 교회를 섬겼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 목사님의 사랑도 받았던 두 분은 교회의 내부사정으로 목사님을 따라 새로운 교회로 옮기게 된다. 몇 년 동안 그 아픔이 회복될 때쯤 새로 옮긴 교회도 또 어려워져 두 분은 깊은 회의 속에 교회와 멀어져 갔다. "때로는 부부가 육교 위로 올라가 눈에 띄는 수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놓고 찬송하며 섬길 교회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기도 했지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직장생활에 쫓기어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 갔지만 하나님은 진교남 집사에게 다른

교회에 다시금 출석하며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기 시작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다는 꿈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녀교육 문제로 99년 초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주일에도 가족이 다 떨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자 아이들의 믿음생활을 위해 김 집사는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남편과 한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진 집사는 작년 초부터 강남의 교회들을 살살이 방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과 양육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누이동생 가정을 통해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긴 방황의 터널을 빠져나와 비로소 안식의 등지를 듭니다." 진교남 집사는 현재 KBS미술(소

70인 전도대 보고서 ②

한정아 집사 (2교구)

나는 조그만 수첩하나를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을 간절히 느낀다. 그곳에는 내가 말씀을 꼭 전하여야 할 영혼들의 이름들이 적혀있다. 그 중에는 이미 교회로 나와있는 이름도 있고 아직 주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은 영혼들도 있다. 기도수첩이며 또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해야 할 제목이 적힌 간단한 개인 신상 카드인 셈이다. 반포동 시절에 만났던 영혼부터 대치동에서의 새로운 만남의 영혼들까지...

전도한 초신자들 대부분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 정해진 시간의 다락방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워 기존 다락방 모임외에 개개인의 사업장을 찾아가 30분에서 1시간정도의 다락방 공부를 일대일로 하고 있는데 4군데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기에 둘만의 시간을 통해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이가 더욱 좁혀지길 원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사순절 외계의 기도

홍정선 집사(2교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생의 제물이 되셨다면 세상의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멸시, 천대, 고난으로 점철된 주님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장 높은 지위와 영광 받는 자리를 탐내었으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생활이었으며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니다. 주님! 이 허물을 통회하면서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사랑, 화평, 인내와 자비하게 하고요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모습을 닮으며 신생의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준이가 많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는 진교남, 김희옥 집사

수련회를 마치고 ② 스테반회 수련회에서

"새 예배당 시대 스테반회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지난 2월 28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부부회원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새 예배당에서 스테반회 수련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남의 건물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눈물어린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흔적이 물씬 배인 새 하나님의 집에서 모이게 되니 감회가 더욱 새로웠다. 또한 성령이 거하시시는 평온함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중운 목사님은 수련회 강의를 통해 스테반 회원의 본분을 깨닫게 해주셨다. 스테반 회원은 교회의 중간적인 역할자로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알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에 초점을 맞춰 겸손히 헌신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됐다. 수련회 시간 내내 우리 스테반 회원들은 각자가 타다 남은 부지깅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처럼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며, 말씀에 입각한 신앙 생활을 하겠노라고 시시때때로 다짐해 보지만 결심에 비해 너무도 부족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했다.

분임 토의 시간에는 찬양과 교제의 덕도 나누면서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도 벌였다. 교육과 전도, 예배, 관리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 토론회는 너무 진지해서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해 조별 발표를 할 때가 되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뜻깊은 수련회를 마치며 우리들은 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목사님의 목회방침을 따라 각자가 실천하는 스테반 회원이 되기로 다짐했다. **이복규 집사 (10교구)**

고등부 수련회에서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의 영혼은 매 마른 가지를 끌어안는 기분이었다. 매 마른 가지를 끌어안아 그 안에 새순이 돋아 날 수 있다면, 그 죽어버린 딱딱한 껍데기를 뚫고 믿음의 새 잎이 돋아나 주기만 한다면... 이들이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것을 보고 싶었다. 왜곡된 열망을 주님의 비전으로 바꾸어줄 수 있다면, 상실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바탕 어우러질 수 있다면, 입시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동계 수련회는 이 모든 바람의 시작이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들은 세상이 주는 재미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우리의 승부 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비전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함께 하심'의 평안이다. 그리고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눈물이다.

직접 몸으로 자신들의 꿈을 연출하면서 그 꿈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기뻐한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새삼스레 내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한가지 고백이 있다.

"여전히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전히 십대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에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손재영 (고등부교사)

부산에서 보낸 10달

김민철(청년부)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를 제대하고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이 없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취직을 허락하셔서 지난해 2월 방송국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부산으로 발령 받아 내려 가게 됐습니다. 부산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적 전쟁의 첫 무대였습니다. 당시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를 맞본 뒤여서 앞으로 믿음생활도 승승장구 행진을 할 것으로 자신하며 부산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1년 차 수습기자로서의 첫 사회생활은 많은 시험과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낙심과 좌절도 됐고, 계속되는 긴장과 피로 속에 만사가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자 생활은 때때로 목숨을 담보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사오마이'가 부산을 강타하면서 4만 톤 급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이 두 동강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얻어 헬기를 탔습니다.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내려왔지만 나중에 보니 공중에서 헬기의 프로펠러가 고장나 하마터면 대형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큰 사고를 모면하면서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은 값진 교훈들을 제게 풍성히 남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영적 전사로서의 소양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기지 않게 빨리 지났던 10개월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서울생활을 하게 된 저는 순례자 편집부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순례자는 단순한 소식지 차원을 넘어서 문서 선교의 역할 뿐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돕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선교 보고서도 되고요. 글을 쓰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생의 업이 된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섬기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정

- 손영준 목사(협동목사)는 미국에서 신병을 치료한 후 지난 3월5일 건강하게 귀국했다. 이번 주부터 영어 동시통역의 사역을 주일 II부 예배시간에 담당한다.
- 배호성, 안진희 성도(4교구) 등녀
- 최형림 집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수여받음
- 신입 직원 인사발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청소 및 경비는 (주) 새아과 용역을 맺음

구분	성명
관리담당	김찬-웅
기계실관리	김진호
전기실관리	오인섭
조리사	김영순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정무균집사, 이영희 권사 가정(1교구)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